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간담회 개최

- 고용노동부, 최근 중대재해 현황 공유 및 소규모 사업장 점검 강화 등 당부
- 지방정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역 특화 예방 활동 및 추진계획 공유

고용노동부는 11.11.(화) 15:3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정부 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간담회에는 15개 광역시·도 산업안전 담당 관계자가 참석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표한 지붕공사 추락사고 감축 방안, 지방 발주공사 중대재해 현황 등을 공유, 협조를 당부하고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 등 ‘26년 추진 예정인 사업에 대해 공유했다.

각 시·도는 그간 지역 단위로 추진해 온 특화 산업재해 예방 활동 사례와 취약 분야 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 특히 노동안전지킴이 현장 점검, 소규모 사업장 위험성평가 등 컨설팅 지원, 작업환경 유해 위험요인 개선, 자체 발주공사 안전수칙 준수 점검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다양한 노력을 공유했다.

소규모 현장, 서비스업 등 생활 밀착형 분야의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민간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향후 상시적인 협업 체계 구축, 정보 공유 강화, 지역별 합동 점검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주체적으로 협력하여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맞춤형 예방대책을 실행해 나갈 때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낼 수 있다”라며, “고용노동부도 정책적 지원과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함께 안전한 일터 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지방정부도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안전보건감독국	책임자	과 장	배영일 (044-202-8901)
	안전보건감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강송훈 (044-202-8914)

□ **일시:** '25. 11. 11.(화) 15:30 ~ 17:30

□ **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 **참석자**

○ (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주재), 건설산재예방감독과장, 산재예방지원과장 등

○ (지방정부) 15개 광역시·도 산업안전 담당 관계자

□ **논의 안건**

○ 중대재해 현황 및 노동부 주요 추진 사항 공유

* 지붕·태양광 공사 등 추락방지, 자체 발주현장 점검 체계,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사업 등

○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 산재 예방 활동 공유

○ 향후 협업 방안 논의

□ **세부 진행계획**

시간		진행내용	비고
15:30~15:35	'5	▲ 개회	
15:35~15:40	'5	▲ 인사말씀	노동부
15:40~16:00	'20	▲ 중대재해 현황 및 노동부 주요 추진 사항 설명	노동부
16:00~16:50	'50	▲ 각 지방 정부별 예방 활동 및 향후 추진 계획	지방정부
16:50~17:25	'35	▲ 협업 방안 논의	현장제안
17:25~17:30	'5	▲ 마무리말씀	노동부
17:30	-	▲ 폐회	